**시149:06 Note**

**◆Cross check : 히0412,계0116**

Ω히0412.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세력이 있으며, 양 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, 혼과 영을 심지어 따로(두 동강이로) 나누기까지, 또 관절들과 골수를 따로(두 동강이로) 나누기까지 꿰뚫어 보며(간파하며),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는 자이심이라.

계0116.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 오른손에 일곱의 별들을 가지고(에코:붑잡다, 소유하다,간직하다,동반하다,보관하다) 계셨느니라,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양날의 검이 나왔으며, 그분의 얼굴은, 태양이 그 능력(뒤나미스: 힘,능력,권능,권력,세력)으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았느니라.